

최근 수정일 : 2024.09.23.(월)

## ■ [공통: 독서·문학]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5. ④ 06. ③ 07. ① 08. ④ 09. ⑤ 10. ②  
 11. ③ 12. ① 13. ③ 14. ⑤ 15. ① 16. ⑤ 17. ① 18. ① 19. ③ 20. ⑤  
 21. ⑤ 22. ③ 23. ① 24. ④ 25. ④ 26. ⑤ 27. ③ 28. ④ 29. ③ 30. ⑤  
 31. ② 32. ① 33. ③ 34. ③

## [1~3] 독서

## [1~3] 독서 이론,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 읽기'

**지문해설** : 이 글은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의 특징과 목적에 따른 시각 자료의 구분, 시각 자료를 포함한 글의 읽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문자 정보'와 '이미지 정보'를 함께 처리하게 되는데, 이 두 정보들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한다. 시각 자료는 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에 따라 예시적, 설명적, 보충적 시각 자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장식적 시각 자료가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글의 내용과 시각 자료의 관계를 살피고, 시각 자료로 강조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시각 자료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주제]**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의 특징과 읽기 방법

##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 따르면 머릿속에서 처리되는 정보에는 문자 정보와 이미지 정보가 있으며,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각 자료이다. 시각 자료는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 즉 그 용도에 따라 예시적, 설명적, 보충적 시각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시각 자료가 그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였을 뿐, 시각 자료의 용도가 정보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지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글 내용과 관련 없이 여백을 메우는 목적으로 장식적 시각 자료가 쓰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② 3문단에서 독자는 시각 자료로 강조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글에서 중요한 정보를 시각 자료를 통해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③ 3문단에서 독자는 매력적인 시각 자료에 사로잡혀 읽기의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독자가 시각 자료에 끌리다 보면 글을 읽는 목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⑤ 3문단에서 독자는 낯설고 복잡한 시각 자료도 읽어 내는 능동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2.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1문단에서 독자는 문자로만 구성된 글을 읽을 때는 문자 정보만을 처리하고,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읽을 때는 이미지 정보도 함께 처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독자가 문자 정보를 떠올리지 못할 때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어 글 내용을 기억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독자가 문자 정보를 떠올릴 수 있을 때는 이미지 정보의 도움 없이도 글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독자는 글 내용과 이에 적합한 시각 자료를 종합하여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문자 정보와 이미지 정보는 서로 참조되면서 연결되어 독자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한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시각 자료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견해에 따르면, 시각 자료는 문자 외에 또 다른 학습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 ④ 3문단에서 시각 자료를 포함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글의 내용과 시각 자료의 관계를 살피고 시각 자료로 강조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시각 자료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 3. 독서 방법 추론

**정답해설** : <보기>에서, 글에는 파피루스 줄기를 잘라, 줄기를 가로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들었다는 내용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림 1은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제시하면서, 같은 길이로 길고 짧게 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 주는 설명적 시각 자료에 해당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제목 옆의 비행기 그림은 예시적 시각 자료가 아니라 장식적 시각 자료로 볼 수 있다. ③ 파피루스 줄기들을 가로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그림 2는 예시적 시각 자료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의 글에는 파피루스 종이에 대한 내용만 있다. 따라서 이집트 상형 문자가 벽에 새겨진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 3은 ‘이집트의 기록 문화’라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보충하는 보충적 시각 자료로 볼 수 있다. ⑤ 그림 2는 예시적 시각 자료이므로 글에서 다른 내용을 보완하여 글의 범위를 확장하는 보충적 시각 자료로 볼 수 없다.

## [4~7] 독서

### [4~7] 사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및 부당한 광고의 규제’

**지문해설** :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며,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시광고법’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부당한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

#### 4.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5문단에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부당한 광고를 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하였고, 3문단에서 이러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유통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물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이고, ㉡은 이용후기 광고이다. 6문단에서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은 ㉡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된다고 하였다. ② 3문단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을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을 할 때 영업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하는 행위라고 하였으므로, ㉢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일어나는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문단에서 ㉣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개입되어 일어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3문단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 할지라도 거래 상대방에게 그것을 지정하여 준수하도록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6문단에서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4문단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는 금지하며 위반할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갑이 박○○ 교수팀이 A 상품을 실험·검증하고 우수성을 추천·보증했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이다. 이는 소비자를 속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6문단에서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붙여’는 ‘조건, 이유, 구실 따위를 딸리게 하다.’의 의미로, ‘그는 내 의견에 본인의 견해를 붙여 발언을 이어 갔다.’의 ‘붙여’가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깝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생기게 하다.’의 의미이다. ③ ‘신체의 일부분

을 어느 곳에 대다.’의 의미이다. ④ ‘맞달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의 의미이다. ⑤ ‘불을 일으켜 타게 하다.’의 의미이다.

#### [8~11] 독서

#### [8~11] 과학·기술,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한계’

**지문해설** : 이 글은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검증과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으로 보안성과 탈중앙성, 확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블록체인 기술은 대규모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주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한계

#### 8.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블록체인의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증명이 있다고 하였다.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증명보다 더 큰 범주이므로 합의 알고리즘을 작업증명의 한 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 3문단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장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4문단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특성들을 함께 높일 방법이 없어 대규모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다. ② 블록체인이 데이터 단위인 블록이 체인 형태로 연결된 것임을 언급하고 있을 뿐,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분야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③ 3문단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기술과의 경쟁 양상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1문단에서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 하고,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하였다.

#### 9.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블록체인에 연결될 수 있는 블록은 검증이 끝난 블록이어야 한다.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것은 블록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의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지며, 이러한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② 3문단에서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의 연결이 끊어진다고 하였다. 승인 과정은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블록은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이 아니라 데이터가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이다. ③ 4문단에 따르면 보안성은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다.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보안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 ④ 2문단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되며,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 10.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가 일부 지워졌을 때에는 다른 노드들에 있는,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를 별도의 승인 과정 없이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복원이 용이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 따르면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으므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 ③ 승인 과정에는 모든 노드가 참여한다. 노드 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지워진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④ 3문단에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블록이 끊어진 경우,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에는 승인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복원이 용이하다고 하였으므로,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원이 용이하다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1문단에서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연결된 서로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11. 구체적인 사례 적용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는 속도는 승인 과정에 걸

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빨라진다. 승인 과정에는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를 정하기 위해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노드의 수가 적을수록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도 짧아질 것이다. 따라서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높아지게 된다. 또한 4문단에서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고 하였으므로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 따르면 확장성은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다. A 업체의 기술은 응용 분야인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하게 되었으므로, 이전보다 확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4문단에 따르면,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면 보안성은 낮아지므로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4문단에서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고 하였으므로 노드 수가 증가하면 보안성이 높아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노드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성능이 저하되므로 확장성은 낮아질 수 있다. ④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되어 있고,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에 제한이 없다. 2문단에서 노드 수에 제한을 두는 블록체인 기술을 비공개형이라고 한다고 하였으므로,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달리 비공개형임을 알 수 있다. 4문단에서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고 하였고,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의 노드 수가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 노드 수보다 적으므로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성이 더 낮다. ⑤ A, B 업체는 서로 다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승인 과정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3문단에서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이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보다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킨 것이라 하였으므로, A 업체의 기술이 B 업체의 기술보다 무결성이 더 높은 것은 아니다.

**[12~17] 주제 통합**

**[12~17] 예술, (가) 바쟁의 영화 이론 / (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

**지문해설 :** (가)는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쟁의 영화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바쟁은 영화 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하고, 이미지를 믿는 감독들이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데 주력한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현실을 믿는 감독들은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고 보았다. 바쟁은 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

---

각했기 때문에 현실을 믿는 감독들을 지지했으며, 그들이 사용했던 디프 포커스나 롱 테이크 기법,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에 찬사를 보냈다.

**[주제]**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를 지지한 바쟁의 영화 이론

**지문해설 :** (나)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은 영화 장치들로 인해 발생하는 동일시를 통해 허구의 세계인 영화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앤다. 관객의 시점이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되면서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선은 카메라에 의해 이미 규정된 시선이며, 편집 과정을 통해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진 인위적인 세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영화에 몰입하여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 있는 대안적인 영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주제]** 영화의 현실이 환영이라고 본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

## 12.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1문단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에서 영화에 대한 비유를 확인할 수 있다. (나)의 3문단 ‘영화에 몰입한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 속 죄수처럼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한다. 이때 영화는 꿈에 빗대진다.’에서 영화에 대한 비유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3문단에는 바쟁이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고, 이들이 영화의 내용을 더 중시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나)에는 내용과 형식 중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 ③ (가)와 (나) 모두 관객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관객의 심리가 영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나) 모두 영화 이론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나)의 3문단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에서 영화관 환경이 관객에게 준 영향을 언급하고 있지만, (가)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다.

## 1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디프 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숲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디프 포커스를 활용하여 주인공과 주인공 뒤의 배경을 하나의 숲으로 촬영한 장면에서는 숲 전체가 선명하게 보인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몽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한다. 따라서 몽타주를 활용하여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한 장면에서 관객은 생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몽타주는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몽타주를 활용하여 불규칙하게 교차시킨 장면에서 관객들은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④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롱 테이크는 하나의 숏이 1~2분 이상 끊임 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으로,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롱 테이크를 활용한 장면에서 관객들은 실제 상황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활용하여 군중을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자율적으로 인물이나 배경에 시선을 옮기며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다.

#### 14.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관객을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작품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가)의 바쟁은 <보기>와 다른 입장이다. 바쟁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몽타주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현실을 믿는 감독’이 디프 포커스, 롱 테이크,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 열린 결말 등을 통해 관객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바쟁이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 영화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감독이 관객보다 우위에 있다고 간주하는 입장은 <보기>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관객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바쟁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열린 결말을 선호했다.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의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는 것을 영화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다. ③ 바쟁은 영화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하였는데, 이것은 감독의 역량에 따라 유형을 나눈 것이 아니라 형식과 내용 중 무엇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나눈 것이다. ④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들이 주력하는 것이다. 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으므로 변형된 현실을 통해 생성한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중시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15.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

**정답해설** :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는 관객이 허구의 세계인 영화에서 현실감을 느끼는 이유와 관련하여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관객이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1문단에서 관객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앴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실의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1문단에서 동일시는 극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화가 현실을 불연속적으로 파편화하여 드러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나)의 3문단에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의 이유가 아니라 ㉠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연결된다. ⑤ (나)의 2문단에서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객은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배제된 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 16.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B의 관점에서 볼 때,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사실적인 영화 ㉠과 비현실적이지만 실재라고 느끼게 하는 영화 ㉡에서 모두 동일시가 발생한다. 즉, 관객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앤다. 영화 감상문에서 학생이 느낀 감동과 쾌감은 동일시를 통해 느낀 것이다. 이는 곧 상상적 작업을 통해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켰기 때문에 느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현실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에 나타난 열린 결말이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은 것은 ‘현실을 믿는 감독’의 특징에 해당된다. ② A의 관점에서는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하여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한다. 이는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에서 사건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A의 관점에서 ㉠은 다큐멘터리로 착각할 정도로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으로 촬영되었다. 그렇지만 ㉡에서 일어나는 착각은 실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컴퓨터 그래픽 화면 때문이었다. ㉠과 ㉡가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은 서로 다르다. ④ 학생은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B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 허구적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했다. ㉡에서 의아함을 떠올린 것은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가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대안적 영화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개선(改善)되다’는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가 고쳐져 더 좋게 되다.’의 의미이므로, ‘지금까지 있는 적이 없다.’라는 의미의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파괴(破壞)하다’는 ‘조직, 질서, 관계 따위를 와해하거나 무너뜨리다.’의 의미이므로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③ ‘대면(對面)하다’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하다.’의 의미이므로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④ ‘기용(起用)하다’는 ‘인재를 높은 자리에 올려 쓰다.’의 의미이므로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⑤ ‘해소(解消)하다’는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리다.’의 의미이므로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 [18~21] 문학

### [18-21] 고전소설 - 수산, 「광한루기」

**지문해설** : 조선 후기에 수산(水山)이 지은 한문체 고전소설로 「춘향전」의 이본이다. 등장인물의 경우 춘향과 월매는 그대로이나 이 도령이 도린(桃隣)으로, 방자는 김한(金漢)으로 나타나고, 향단은 출현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이지만, 작품의 주요 내용은 ‘춘향과 이도린의 만남 - 이별 - 춘향의 시련과 수절 - 춘향과 이도린의 재회’로 기존 「춘향전」의 일반적인 서사 구조와 거의 유사하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부분은 책머리에 서문과 발간사, 작품 독법 등 다양한 글이 실려 있고, 총 8회로 이루어진 본문 전후에 글쓴이의 부연 설명과 감상, 비평이 삽입되어 있으며, 책 끝부분에는 소인(小引), 부록 등이 붙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세기의 소설 비평의 수준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문학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제]** 춘향과 도린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 1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춘향은 꽃그늘 속에서 이도린을 바라보며, ‘티 없이 맑’은 그의 모습을 보고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을 만큼 이도린에게 호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는 춘향이 꽃그늘에 숨어서 한 행위이므로 이도린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② 춘향은 ‘원래 춘향은 풍경을 즐기려는 옆집 여자 아이를 따라 나온 것’이었으므로 춘향이 그네를 타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다는 사실을 확정하기 어렵다. 설사 ‘그네를 타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다고 가정하더라도 춘향은 ‘채색 줄로 만든 그네를 탔’으므로

기대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이도린이 춘향을 불러오라고 김한에게 요청하자, 김한은 ‘부른다 해도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도린이 춘향을 부르면 이도린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는 말은 김한이 한 말로 볼 수 없으며, 이도린이 그 말을 믿었다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④ 이도린이 김한에게 그네 뛰는 여인이 ‘누구란 말이나?’라고 묻자, 김한은 ‘교방 행수 기생 월매’를 언급한다. 이에 이도린은 ‘아리따운 여인’을 ‘노파에다 비교’한다며 의아한 반응을 보이자, 김한은 ‘저 사람은 월매의 딸 춘향’이라고 알려준다. 이를 통해 이도린은 월매가 춘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알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⑤ 옆집 여자 아이는 ‘풍경을 즐기려’고 했을 뿐, 그녀가 이도린을 만나기 위해 춘향과 함께 나왔거나 풍경을 즐기는 것에 만족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9.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꽃그늘’은 춘향이 ‘몸을 돌려’ ‘들어가 숨고서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광한루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는 이도린의 모습을 보며 찬탄하던 곳이다. 따라서 ‘꽃그늘’을 춘향이 몸을 감추고 이도린을 바라보는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꽃그늘’은 춘향이 타던 ‘그네를 멈추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려’ 하다가 ‘광한루 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 몸을 숨기려고 들어간 곳이다. 따라서 그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꽃그늘’은 춘향이 갑자기 ‘광한루 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 ‘몸을 돌려 숨’은 곳이며, 그런 그녀를 김한이 이리저리 찾다가 발견한 곳이다. 따라서 춘향이 김한을 기다리며 머물고 있는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꽃그늘’은 춘향을 불러오라는 이도린의 요청을 받은 김한이 숨어 있던 춘향을 찾은 곳이다. 이도린은 광한루 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므로, ‘꽃그늘’을 김한이 이도린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광한루에 놀러 간 이도린은 그네 뛰는 춘향을 우연히 보았으며, 그 모습에 반하여 김한의 도움을 받아 춘향과 만나려고 한다. 이에 김한이 춘향을 찾아간 곳이 ‘꽃그늘’이므로 이곳을 이도린이 춘향과 만나기 위해 미리 약속한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0. 인물의 성격, 유형 이해

**정답해설 :** 김한은 춘향에게 찾아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을 언급하고, ‘도련님께서 춘향이 ~ 그렇게 된 것이요.’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김한이 춘향과 이도린과의 만남은 거둬된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연임을 알려 준 사실과, 김한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도린이 그네 뛰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저것이 금이나, 옥이나?’라고 한 것은 춘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해서 한 말이며 실제 그것이 금인지 옥

인지 몰라서 한 말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김한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금과 옥이 아니라고 이도린에게 알려 주어 이도린의 무지를 일깨우는 비판자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김한은 고사를 인용하여 ‘선녀 같은 아가씨가 요즘 세상에 나타났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한은 춘향을 두고 이도린에게 선녀 같은 아가씨라고 말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한이 춘향을 기생 월매의 딸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이도린이 춘향의 고귀한 신분을 알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춘향을 ‘풍류를 즐길 만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은 김한이 아니라 이도린이다. 또한 이도린이 김한에게 춘향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자 김한은 ‘부른다 해도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김한을 이도린이 춘향을 부르게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도린의 요청에 따라 춘향에게 찾아간 김한은 춘향이 이도린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그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이다지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오?’라고 말하며, 춘향이 이도린과 만나도록 춘향을 설득한다. 따라서 김한은 춘향과 이도린의 만남을 돕는 조력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춘향이 도린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자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A]에서는 「광한루기」가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임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에서는 인물의 대화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보태어 인물의 말에 동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A]와 ㉠을 통해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하여 「광한루기」를 8회로 구성한 이유를 부각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오작교에선 선랑(仙郎)이 봄바람에 ~가인(佳人)이 그네를 뛰네’라는 시구를 활용하여, ‘봄바람’과 ‘버드나무 언덕’이 어우러진 봄날의 분위기를 보여 주면서 해당 회의 제목인 ‘봄놀이’와 관련된 서사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② [A]에서는 ‘광한루 하나가 공중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힘으로써, 해당 회와 주요 배경인 ‘광한루’를 소개함과 동시에 작품 탄생의 시발점으로서 ‘광한루’라는 공간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③ [A]에는 ‘광한루 하나가 ~있었기에 이도린이 놀러 갈 수밖에 없었고’,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두 인물이 만나게 되는 계기를 서술하고 있다. 이는 사건의 인과성을 드러내어 서사 전개와 개연성을 보여 주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은 인물의 말에 대해 서술자가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덧붙이는 형태의 논평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표현은 ‘어찌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설의적 방식을 통해 서술자가 이도린의 말에 동조하며 그러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여 주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

[22~27] 문학

[22-27] 갈래복합 - (가) 백석, '북방에서-정현웅에게' / (나)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生家)' / (다) 유본예, '이문원노종기(淸文院老樵記)'

지문해설 : (가)는 화자의 삶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현실에서 유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회한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먼 옛날부터 살았던 북방을 떠나 '앞대', 즉 한반도에 정착하던 상황을 떠올린다. 그리고 안일하게 현실에 순응하며 살았던 과거 역사를 성찰한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한반도에서의 삶이 괴로워지자 다시 북방을 찾지만,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북방의 모습을 보며 화자는 허무함과 절망감을 느낀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우리 민족의 대변자로서, 오랜 세월을 걸친 지난 역사를 회상하며 비참한 처지에 놓인 우리 민족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민족의 역사에 대한 회상과 현실의 부끄러움

(나)는 물가의 살얼음 아래에 있는 물고기 떼를 본 화자가 자신의 유년 시절의 생가를 회상한 내용과 그때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성년이 된 화자는 투명한 얼음 밑에 보이는 '물고기네 방'을 '생가'와 같다고 여긴다. 그리고 '물고기 떼'의 모습을 보며 생가에서 살던 가족의 모습을 떠올린다. 이처럼 화자는 '물고기네 방'과 '물고기 떼'를 유년 시절 자신의 생가, 가족과 동일시하고 있다. 시상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는 유년 시절의 추억이 아직 화자의 마음속에 남아 있음을,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은 유년 시절 추억에 대한 화자의 서글픈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물고기를 보며 떠올린 유년 시절의 추억과 서글픔

(다)는 유본예가 규장각의 사무청사인 이문원에서 근무할 때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창작한 고전 수필이다. 작가는 바쁜 근무 중에 종종 이문원 동쪽에 있는 늪은 나무 곁을 산책하였다. 그런데 그가 나무에서 주목한 것은 큰 가지들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그는 기둥을 보며 나무가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를 바탕으로 홀로 생존할 수 있는 존재도 있지만, 암소와 인간, 나무와 인간처럼 서로 도와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있음을 전하고 있다.

[주제] 서로 의지하고 사는 삶의 중요성

##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는 '자랑'이나 '힘'처럼 북방에서 지니기를 기대했던 것들을 더 이상 지닐 수 없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살얼음 아래에 보이는 '물고기네 방'을

‘생가’에 빚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이 유년 시절에 살았던 생가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을 달고’는 비유를 통해 유년 시절의 생가에 느끼는 서글픔을 나타낸 것이다. (다)에서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듯이 늙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가축과 인간과의 관계에 빚대어 늙은 나무도 인간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가)~(다)는 모두 빚대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 있지만, (나)와 (다)에는 현실의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에서는 북방에서 떠날 때, 북방으로 돌아올 때처럼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여 비극적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나)와 (다)는 모두 역사적 상황에 대해 묘사하지도, 비극적 현실을 나타내지도 않고 있다. ④ (가)의 ‘아, ~ 없다’, (나)의 ‘마음아, ~ 있는가’, (다)의 ‘아! ~ 모면하였다.’는 모두 영탄적 어조가 드러난 부분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나’의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서는 과거 북방을 떠날 때의 장면에 향토적 소재가 일부 쓰였지만, 이는 북방을 떠나는 화자의 괴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데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나)의 화자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추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기 위해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에서는 과거에 대한 글쓴이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2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태반’은 화자에게 뿌리와 같은 공간으로, 여기서는 ‘북방’을 의미한다. 화자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북방에 돌아왔지만,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며 허무함과 상실감을 느낀다. (나)의 ‘생가’는 화자가 유년 시절 보냈던 곳으로, 화자는 ‘물고기네’가 사는 공간을 보며 자신의 생가를 떠올린다. 그런데 화자가 그곳을 볼 때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을 달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화자가 ‘생가’로 인해 시린 느낌, 즉 서글픔을 느낀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화자는 돌아온 ‘태반’에서 이전과 달라진 괴리감을 느꼈지만, 작품에서 화자가 ‘소외감’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다. (나)의 화자에게 ‘생가’는 서글픔을 유발하는 공간이지만, 작품에서 화자가 어린 시절 수치심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다. ③ (가)에서 ‘태반’은 화자가 새로운 삶을 위해 선택한 공간으로, 이별을 수용하는 공간이라 할 수 없다. (나)에서 ‘생가’는 추억 속의 공간으로, 만남을 기약하는 공간이라 할 수 없다. ④ (가)의 화자는 ‘앞대’에서의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고자 태반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막상 도착한 태반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으로 인해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나)의 화자에게 ‘생가’는 그립고 서러운 곳으로, 절망이 드러나

는 공간은 아니다. ⑤ ((가)의 화자에게 ‘태반’은 새로운 삶을 지향하기 위해 선택한 곳으로, 생명의 섭리와는 관련이 없다. (나)의 화자에게 ‘생가’는 자신이 유년 시절에 지냈던 곳으로, 생명의 섭리와는 관련이 없다.

#### 2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㉔은 화자가 북방을 떠나 ‘앞대’로 떠나올 때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고, ㉕은 화자가 ‘앞대’에서의 괴로운 삶을 견딜 수 없어 다시 북방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㉔의 시구가 ㉕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을 뿐,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㉑에서는 ‘부여’, ‘숙신’, ‘발해’, ‘여진’, ‘요’, ‘금’과 같은 여러 민족과 나라, ‘흥안령’, ‘음산’, ‘아무우르’, ‘송가리’와 같은 여러 지명을 열거하여, 화자가 떠난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㉒에서는 ‘자작나무’, ‘이깔나무’, ‘갈대’, ‘장풍’과 같은 나무와 풀을 의인화하여 북방을 떠나기 아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투영해 표현하고 있다. ③ ㉓에서는 ‘~이 ~을 ~ㄴ 것도’와 같은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화자가 북방의 민족들과 이별하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북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⑤ ㉕에서는 화자가 북방에서 보고 싶고 지니고 싶은 것들을 나열한 후 그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 북방에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던 것들이 부재함을 표현하고 있다.

#### 2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화자는 ‘물고기네’의 여기저기를 보며 그 모습에 자신의 유년 시절 생가에 대한 기억을 투영하고 있다. 화자는 어미 물고기가 좁은 돌 틈새로 어린 물고기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돌 틈 사이에 ‘빠곡히 서’ 있는 ‘물고기네’를 보며 그들이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모습은 화자를 보고 놀라 좁은 틈에 숨은 물고기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자, 화자가 유년 시절 생가의 좁은 방에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더불어 지냈던 모습을 투영한 것으로, 고독하게 지냈던 유년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투명한 창’, 즉 살얼음 아래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사는 곳을 ‘물고기네 방’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며 ‘나의 생가’와 같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는 물고기의 공간과 자신의 생가를 겹쳐 보고 있는 것이다. ② 화자는 ‘물고기네’를 유년 시절의 자기 가족과 겹쳐 보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창으로 나를 보’고 놀라 ‘사방 쪽방으로 흩어’진다고 표현한 것은 ‘생가의 식구들’이 어른이 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③ 화자는 물고기들을 보며 ‘젖을 갓 땀 어린 것들’이 ‘그네끼리 놀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유년 시절 생가에

서 어린 형제들과 함께 놀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 것이다. ⑤ 화자는 ‘물고기네’의 모습을 보며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아직도 생가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 26.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㉔는 투명한 살얼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는 길을 가다 물가에서 이창을 보게 된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㉕는 늙은 나무의 큰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지해 놓은 것으로, 글쓴이는 무성한 나무에 여러 기둥이 받쳐져 있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기둥을 보며 이 나무가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한다. 이처럼 ㉔는 물속을, ㉕는 나무를 새롭게 주목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㉔는 물속 존재에 대한 화자의 궁금증을 자극할 뿐, 불안을 심화하지 않는다. ㉕는 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궁금증을 유발할 뿐, 글쓴이의 의지를 북돋고 있지는 않다. ② ㉔는 화자가 직접 보고 있는 살얼음일 뿐, 화자의 이상향을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㉕도 글쓴이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할 뿐, 글쓴이의 태도를 전환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③ ㉔와 ㉕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책임감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지는 않는다. ④ ㉔와 ㉕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글쓴이는 동료에게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의 특이함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위해 풀과 나무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대개 풀과 나무는 제각기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나물들은 열매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가지를 지니고 있고, 풀들은 말발굽이나 수레바퀴에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 땅바닥에 붙어 자란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문원 동쪽의 늙은 나무는 사람이 받쳐 준 기둥이 있어 부러지지 않고 살 수 있다. 이처럼 ‘풀과 나무’가 지닌 ‘몸을 보존하는 계책’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 누구의 도움 없이 생존을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글쓴이는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백여 년’을 살 수 있는 이유를 분석했고, 그 결과 이 나무가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② 글쓴이는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 곁을 산책할 때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로 인해 ‘홀쩍 벗어나는 기분’을 지녔다고 했는데, 이는 나무가 글쓴이에게 바쁜 근무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안식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④ 글쓴이는 ‘암소’의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하면 인간이 ‘톱으로 잘라’서 암소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는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

해 든 예에 해당한다. ⑤ 글쓴이는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처럼 사람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와 달리 ‘이문동 동쪽 늪은 나무’가 번성하게 자랐다고 밝혔는데, 이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인간의 손, 곧 인간의 도움이 필요함을 밝힌 것이다.

#### [28~31] 문학

#### [28-31] 현대 소설 - 윤홍길, ‘날개 또는 수갑’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한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제복 제도를 도입하면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1970년대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주의를 앞세워 국민을 통제하던 국가 권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준비 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결국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하여 제복 제도를 실시하는 회사 운영진의 모습은 절차적 정당성을 형식적으로만 갖춘 채 국가의 통제를 합리화하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제복 착용에 반발하던 직원들이 결국은 모두 흩어져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지시를 따르는 모습은 현실의 부당함에 대한 비판 의식은 있으나 이를 실천으로 옮겨 저항 행동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소시민의 면모를 풍자하고 있다.

**[주제]** 구성원을 획일화하고자 하는 전체주의 문화 비판

#### 28.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의 ‘도식이 보기엔’에서 서술자가 민도식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술자는 민도식의 시선을 통해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한 웃는 표정,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 ‘작은 체구’,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 등 권 씨의 특징을 관찰하여 알려 주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는 권 씨의 행위가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권 씨의 내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② [A]에는 민도식이 권 씨를 바라보는 상황만이 나타나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의 교차와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③ [A]에는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A]에는 민도식이 권 씨를 바라보는 상황만이 나타나 있을 뿐,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다.

#### 29.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권 씨는 ㉠을 마저 입을지에 대한 남자 직원들의 대화에 관심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들을 ‘팔 값을 찾아 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이라고 깎아내린다. 이를 고려하면, 권 씨가 남자 사

원들과 마찬가지로 ㉠을 마저 입을지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전체 사원이 새로운 제복을 착용하도록 한 준비 위원회의 결정을 가리켜 ‘이미 끝난 일이야’라고 한 민도식의 말은, 준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을 마저 입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험악해진 분위기’는 준비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남자 직원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과 관련된 문제로 남자 직원들 사이에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아내는 ‘제복’으로 인해 총각 직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믿지 않는 반응을 보이며, 이때 ‘제복’은 ㉠을 마저 입는 것을 뜻한다. ⑤ ‘검정 곤색 일색’은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직원’의 모습을 가리키며, 직원 모두가 ㉠을 마저 입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30.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은 홀로 ‘사복 차림으로’ ‘제1 공장 앞에 당도’한 민도식이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제복을 입고 도열하여 사가를 제창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낀 기분을 나타낸 것으로, 직원들이 민도식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사무직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권 씨는 그들을 돌아다보며 ㉠와 같이 반응하고, 사무직 직원 중 하나인 장상태에게 그들의 대화에 ‘저도 모르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② 장상태가 ‘화를 별걱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에게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라고 명령하자, 미스 윤은 ㉠와 같이 반응한다. ③ 아내는 남편의 회사 직원이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하는 체육 대회 날 ‘밍기적 거리고만 있는 남편’ 때문에 걱정하여 ㉠와 같이 반응한다. ④ 민도식은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직원’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한 모습을 보고서 ㉠와 같이 반응한다.

###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은 권 씨를 만만하게 보고 함께 그에게 화풀이를 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으며,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이나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과는 관계가 없다. 또한 민도식은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 참여하여 그것을 입을지 여부는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민도식은 비판적인 태도로 ‘경영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준비 위

원회'의 '회의'가 대내외에 좋은 인상을 풍기기 위해 행해진 요식행위라는 자신의 관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민도식은 '동림산업'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주체적인 관점을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다고 하는 말에서 민도식이 직원들에게 제복을 강요하는 '동림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 출근하는 민도식의 모습은, 그가 '동림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④ 민도식이 준비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체육 대회에 간 것은 그가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고 싶어 하는 인물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민도식이 그런 자신을 제복을 차려입은 직원들의 '꿈무니에 따라붙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그가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민도식은 '동림 산업'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제복 차림을 한 채 체육 대회에 참여한 직원들의 '꿈무니에 따라붙'을지 행사에 '불참'하고 뒤돌아서서 나올지 결정하지 못한 채 '제1 공장' 정문 앞에서 '불박여 버린 듯'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민도식이 '동림산업'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 [32~34] 문학

#### [32~34] 고전 시가 - (가), (나) 정철의 시조 / (다) 조존성, '호아곡'

**지문해설 :** (가)는 작가가 체험한 16세기 후반의 험난한 정치 현실을 '풍파', '구름' 등의 자연 현상에 빗대어 경험이 적은 신진 관료들에게 정치의 험난함을 알려주고 있는 평시조이다. '일렁이던 배'를 시련을 겪은 관료에, '허술한 배'를 신진 관료에 빗대어 청자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방식이 참신한 느낌을 준다.

**[주제]** 험난한 정치 현실에 대한 경계

(나)는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에 휘말려 정적들의 비방과 모함에 시달리던 작가가 임금인 선조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사설시조이다. '심의산(深意山)'은 추상적인 대상이고, '깊은 뜻'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하다. 오뉴월 한낮에 된서리가 치고 자취눈이 내리는 것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다. 화자는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참혹한 자신의 심정을 보았는지 물으며, 자신을 모함하는 온갖 참소에 임(임금)이 현혹되지 말 것을 바라고 있다.

**[주제]** 참소에 대한 경계와 결백의 호소

(다)는 초장의 첫 구가 '아이야'로 시작하기 때문에 '호아곡(아이를 부르는 노래)'이라고 불린다. 작가인 조존성은 광해군이 자신의 생모인 공빈 김씨를 왕비로 추존하는 것에 반대하다가 파직당한 후 은거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그 당시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각 수에 등장하는 '서쪽 산'과 '동쪽 시내', '남쪽 논밭', '북쪽 마을'에서 화

---

자가 하는 행위는 은자적 삶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도 작품에 활용된 고사를 통해 은거 중에도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던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 전원에서 즐기는 은거 생활의 즐거움

### 3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허술한 배 두신 분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험난한 정치 현실을 경계하라는 요구를, (나)는 ‘임’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참소를 분별하여 판단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도구나 자신이 바라는 행동에 대한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다) <제2수>의 종장은 ‘고기’라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와 (나)에는 대상의 의인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다) 모두 구체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④ (가)의 ‘어디로 갔단 말인가’, (나)의 ‘자취는 내렸거늘 보았는가’, (다)의 ‘별써 아니 자랐으랴’, ‘누구와 마주 잡을꼬’ 등 물음의 방식을 활용한 표현은 찾을 수 있으나, 이러한 표현들이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가)~(다) 모두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계절의 변화상을 그려 내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33.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제1수>의 종장에서 밤새 자란 고사리를 캐어야 한다는 걱정이 나타나고, 종장의 고사리를 캐어 조석의 끼니를 이으려는 상황과 연결해 볼 때 종장에서 걱정이 강화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 <제3수>의 종장에서도 농기구를 다루는 데 서툰 자신이 누구와 같이 농사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걱정이 나타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제3수>의 종장은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삶에 대한 즐거움을 드러낸 내용이므로 화자의 걱정을 강화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각 수의 첫 음보를 ‘아이야’라는 동일한 시어로 제시하여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제1수>에서는 ‘구력 망태’를, <제2수>에서는 ‘도롱이 샷갓’, ‘낙싯대’ 등의 생활 도구를 언급하여 화자가 전원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④ <제1수>의 종장에서는 ‘나물’을, <제3수>의 초장에서는 ‘죽조반’을 언급하여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제4수>의 종장은 ‘어즈버’라는 감탄 표현을 활용하여 술을 마시며 삶을 즐기는 화자의 만족감을 부각하며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정답해설 :** (나)의 ‘심의산’이 화자의 심회를, ‘오뉴월’의 ‘자취눈’이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나)의 초장과 중장은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버릴 정도로 고통받는 자신의 심리적 정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당쟁의 상황에서 굳은 마음을 지켜 내려는 화자의 의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 ‘풍파’가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라면, (가)의 초장 ‘어디로 갔단 말인가’는 당쟁에 휘말려 시련을 겪은 관료가 파직, 유배, 은거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소외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험한 구름은 풍파를 예측하게 한다는 점에서 ‘구름이 험하거늘’이 정치적 위기의 조짐에 해당하고 ‘허술한 배 두신 분네’가 신진 관료라면, (가)의 종장은 화자가 ‘구름이 험’한 상태에서 ‘처음 나’온 신진 관료들에게 험난한 정계에서 처신에 조심하라고 경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온 놈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이고 ‘임’이 임금이라면, (나)의 종장은 화자가 임금이 온갖 참소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결백을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미늘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한다면, (다)의 <제2수> 종장은 화자가 자연물인 ‘고기’를 의인화하여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화자의 흥과 즐거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선택: 화법과 작문]

35. ⑤ 36. ② 37. ① 38. ⑤ 39. ② 40. ⑤ 41. ④ 42. ③ 43. ② 44. ④  
45. ④

[35~37] 화법

35. 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발표자는 발표 도입부에서 ‘잠시 집중해 주세요.’라며 ㉠을 제시하고 있는데, 효과음을 통해 발표 주제에 관한 청중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발표의 마무리 부분에서 ㉡을 제시하면서 청중에게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하고 있다. 발표자는 발표의 도입부에 제시한 ㉠과 마무리 부분에 제시한 ㉡을 연결함으로써 안전벨트 착용이라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가 청중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을,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 ㉡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으나, ㉠과 ㉡을 비교하여 생각의 다양함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② 발표자는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을 활용하고 있으며, 단점을 드러내기 위해 ㉡을 활용한 것은 아니다. 또한 ㉠과 ㉡을 대조하여 청중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지도 않았다. ③ ㉠과 ㉡ 모두 발표 순서를 안내하거나 환기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④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을, 문제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을 활용한 것은 아니며, ㉠과 ㉡을 대응시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부각하지도 않았다.

36. 발표에서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해설** : [자료 1]은 띠를 잠그는 장치를 화살표로 표시해서 보여 주는 자료이고, [자료 2]는 띠를 당기거나 풀어 주는 장치를 화살표로 표시해서 보여 주는 자료이며, [자료 3]은 어깨 고정 점에 동그라미를 표시해서 고정 점이 세 개 있는 3점식 안전벨트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 차량이 충돌할 때 탑니를 회전시키는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에 제시된 [자료 2]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는 2문단에서 ㉠을 제시하며 ‘띠를 잠그는 장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자료 1]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해당 내용을 보여 주기 위해 [자료 1]을 ㉠에 제시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발표자는 2문단에서 ㉡을 제시하며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탑니를 회전시켜 띠를 감아 당기면서 몸을 잡아 줍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자료 2]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해당 내용을 보여 주기 위해 [자료 2]를 ㉡에 제시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발표자는 3문단에서 ㉢을 제시하며 ‘탑승자 어깨 위에도 고정 점이 하나 더’ 있다며 2점식에 비해 3점식 벨트에 추가된 고정 점

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자료 3]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해당 내용을 보여 주기 위해 [자료 3]을 ㉔에 제시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⑤ 발표자는 3문단에서 ㉔를 제시하며 3점식은 2점식에 비해 고정 점이 많아 ‘어깨까지 잘 잡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자료 3]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해당 내용을 보여 주기 위해 [자료 3]을 ㉔에 제시했다는 것은 적절하다.

### 37. 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해설 :**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안전벨트가 중요하단 생각이 확고해졌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1’이 기존에도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이 드러나므로 ‘학생 1’이 발표 내용을 통해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통계의 출처가 분명’해서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통계 자료와 관련하여 ‘학생 2’는 발표에서 ‘통계를 제시할 때 뒷좌석 안전벨트의 효과를 알려 주지 않’아 아쉬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생 2’가 발표에 제시된 정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학생 2’는 첫 번째 발화에서 ‘안전벨트의 원리를 구분해서 설명한 것은 효과적이었어.’라며 발표자의 설명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④ ‘학생 2’가 첫 번째 발화에서 ‘띠를 잠그는 장치를 활용하여 몸을 잡아 주는 과정이 흥미로웠’다고 밝혔는데, ‘학생 1’이 자신의 두 번째 발화에서 ‘안전 교육 때 원리가 비슷한 장치에 대해 배웠잖아.’라며 그와 관련된 학습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⑤ ‘학생 1’이 자신의 두 번째 발화에서 ‘그걸 떠올리며 들으니 안전벨트의 원리가 잘 이해됐어.’라며 배경지식을 이용해 안전벨트의 원리를 이해했음을 밝히고 있는데, ‘학생 2’는 자신의 두 번째 발화에서 이 안전벨트의 원리에 관해 ‘인터넷’을 통해 추가 정보를 탐색해 보겠다고 밝히고 있다.

## [38~42] 화법과 작문

### 38. 대화 맥락 분석하기

**정답해설 :** ㉔에서 ‘학생 2’는 ‘사람들한테 크기가 다른 별 스티커를 직접 붙’이게 하자는 ‘학생 3’의 제안에 대해 ‘별들의 밝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제시된 방안의 효과를 덧붙이고 있지만, 직전 발화를 재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㉔에서 ‘학생 3’은 영조 때 혜성을 관측한 기록이 있다는 ‘학생 2’의 발화를 듣고, ‘그 관측 기록’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② ㉔에서 ‘학생 2’는 전시물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 것인지를 묻는 ‘학생 1’의 발화와 관련하여 현재

만들고 있는 전시물이 ‘좀 밋밋해 보’인다고 고민되는 부분을 언급한 뒤, ‘학생 1’에게 질문을 통해 대안을 요청하고 있다. ③ ㉠에서 ‘학생 2’는 ‘영상으로 만들면 생생할 것 같’다는 ‘학생 1’의 발화에 대해 ‘생동감이 있어서 좋’다며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한 뒤, ‘행사 전까지 제작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고 말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④ ㉡에서 ‘학생 2’는 ‘카드에 미리 별의 위치를 표시해 두’면 ‘사람들이 쉽게 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학생 3’의 발화에 대해 동의하면서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로 ‘학교 행사 때 지리 동아리’와 관련된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 39. 대화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해설 :** ‘학생 1’은 네 번째 발화인 ‘조선 시대 별자리 해설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라는 질문을 통해 해설을 준비하는 시간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해설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전시물의 형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질문 계획에 대해, ‘학생 1’의 두 번째 발화에서 ‘전시물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 거야?’라는 질문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③ ‘해설하는 방식은 어떻게 할지?’라는 질문 계획에 대해, ‘학생 1’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별자리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거야?’라는 질문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④ ‘체험 활동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라는 질문 계획에 대해, ‘학생 1’의 여섯 번째 발화에서 ‘별자리 그리기 체험은 ~ 활동을 준비하기로 했잖아? 얼마나 준비됐어?’라는 질문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⑤ ‘체험 활동에 더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라는 질문 계획에 대해, ‘학생 1’의 일곱 번째 발화에서 ‘투명 카드와 야광 펜 외에 필요한 것 더 있어?’라는 질문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 40. 정서 표현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학생 3’의 네 번째 발화에서 우리 옛 별자리와 서양 별자리의 차이점을 설명할 것이라며 별자리 설명 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⑥에서는 이러한 설명 방식 덕분에 이해가 잘 되었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나)의 3문단에서는 ‘서양 별자리와 대조해 설명하니 ~ 함께 이야기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며 설명 방식 선택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학생 1’의 여덟 번째 발화에서 남은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의 배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에서 카드가 부족해서 별자리 그리기 체험을 하지 못해 속상했다는 반응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나)에서 행사 물품 준비 과정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학생 2’의 일곱 번째 발화에서 ‘별들의 밝기 차이도 카드에 나타내면 좋’겠다고 언급한 내용은 ⑥에서 견우, 직녀 이야기가 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어 재미있었다는 반응 및 (나)의 해설 내용 선정에 대한 긍

정적 인식과 관련이 없다. ③ ‘학생 2’의 두 번째 발화에서 혜성 관측 기록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에서는 혜성 관측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웠다는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 전시 주제 변경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학생 3’의 두 번째 발화에서 역사 신문 형식 활용에 대해 제안하고 있으며 ㉡에서는 이에 대해 현재에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는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 전시물의 형식 선택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 41. 정서 표현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

**정답해설** : 축제에서 동아리가 진행한 활동은 전시 활동과 체험 활동인데, 3문단의 ‘이후 이어진 체험 활동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동아리가 진행한 활동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카드가 부족해 발길을 돌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진술을 통해 체험 활동 진행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해결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② 2문단에서 전시 활동에서 활용한 전시물로 역사 신문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시물의 특징을 분류해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③ 1문단에서 동아리가 천문 축제의 전시 체험 분야에 참가한 것은 제시하였지만, 동아리의 참가 분야를 작년과 대비해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축제에 참여한 경험에서 얻은 의미를 진술하고 있지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 42. 정서 표현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해설** : 인상 깊었던 경험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학생 3’의 의견을 반영해, ‘관측에서 별뿔별도 볼 수 있었다.’라는 초고의 진술을 [A]에서는 ‘관측에서 까만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뿔별의 반짝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라는 진술로 구체화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내년 축제의 참여 의향에 대한 내용인 ‘내년 축제에도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라는 진술은 [A]에서 삭제되지 않고 초고의 내용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② 초고에서는 첫 문장에서 관측 행사 도우미 참여 조건을 언급하고 있으나 [A]에서는 이 문장의 위치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삭제하였다. ④ 축제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 초고에서는 ‘조선 천문학에 대해 더 알게 되고 ~ 행복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A]에서도 초고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⑤ [A]에서는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조작법을 안내’한 내용을 제시하며 초고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관측 행사 도우미로서 한 일을 추가하였지만, 이에 대한 소감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

[43~45] 작문

43. 건의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3문단에서는 ‘체육관 내부 농구대 뒤편의 넓은 여유 공간’, 4문단에서는 ‘비품실’, 5문단에서는 ‘체육관 2층 창고’로 구분하여 공간별로 체육 공간 조성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체육 공간의 조성 근거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술 자료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③ 체육 공간이 조성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있지만, 체육 공간 조성에 따른 문제의 원인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문제의 원인들도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④ 체육관 내의 각 공간별 체육 공간 조성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만, 체육 공간 조성을 위한 준비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체육 공간 조성 방안이 실현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제시되어 있지만, 체육 공간 조성 방안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지도 않다.

44. 건의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해설** : 다양한 체육 활동 환경이 마련되면 많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은, 학교 내 체육 공간 조성에 대해 건의하는 글의 흐름에도 부합하며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다수의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A]에 작성할 내용으로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은,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다수의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A]에 작성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학교 체육 기기의 노후화로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학생들의 불만이 해결된다는 내용은, 초고에 제시된 학교 내 체육 공간 조성을 건의하는 이유와 관련이 없으므로 [A]에 작성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지문에서 제시된 건의 내용 중 언급한 공간은 ‘체육관 내부’, ‘체육관 2층 창고’로, ‘체육 활동이 체육관 밖에서도 이어지려면’이라는 진술은 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A]에 작성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공간 재조성을 통해 구기 종목을 수행할 공간을 줄이는 것은 아니므로 [A]에 작성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45. 건의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해설** : ㄱ-1을 통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체육 활동이 다양하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ㄴ을 통해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체육 공간 재구성, 특히 춤을 출 수 있

---

는 공간의 구성이 가져온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해 체육 공간을 조성하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체육 활동이 더 다양해진다는 내용을 마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2문단에 추가해 특색 있는 체육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ㄱ-1에서 선호하는 체육 활동으로 소집단 활동에 응답한 학생 비율이 36%로 가장 많으므로 학생들이 소집단 활동을 가장 선호한다는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를 활용하여 3문단에서 소집단 체육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② ㄱ-2에서 학교에서 체육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공간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5%이고, 시간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5%이므로 시간 부족보다 공간 부족으로 응답한 학생이 세 배나 많다는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를 활용하여 1문단에서 학교 내 체육 공간을 조성하자는 건의문 작성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다. ③ ㄷ에서 청소년기의 신체 관리 운동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며 긍정적 정서 형성에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므로,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유익하다는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를 활용하여 5문단에서 개별 체육 활동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추가하여 보강할 수 있다. ⑤ ㄱ-2에서 체육 활동에 대한 흥미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35%에 달한다는 정보와 ㄴ에서 춤추는 즐거움이 체육을 좋아하지 않던 학생들이 다른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체육 활동에 흥미가 부족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춤을 추는 즐거움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4문단의 춤이 학생들을 다른 체육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다. 한편 3문단에서는 품사 통용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으로 쓰이는 경우로 하나의 명사가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경우와 하나의 동사가 본동사와 보조 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설명하며, ‘바람’과 ‘내다’를 통해 각각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주제]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으로 쓰이는 경우**

### 35. 품사와 문장 성분

**정답해설 :** ‘여기는 그저께 낫만큼 더웠다.’에 쓰인 ‘그저께’의 품사는 명사이고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한편 ‘꽃이 그저께 피었다.’에 쓰인 ‘그저께’의 품사는 부사이고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내 생일은 그저께가 아니라 어제였다.’에 쓰인 ‘그저께’는 명사이다. 격 조사 ‘가’와 결합하여 쓰인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저께 본 달은 매우 밝았다.’에 쓰인 ‘그저께’는 부사이다. ‘그는 그저께 왔다.’에서와 같이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에 쓰인 ‘세계적’은 명사이다. 격 조사 ‘으로’와 결합하여 쓰인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그저께 서둘러 여기를 떠났다.’에 쓰인 ‘그저께’는 부사이다. ‘그는 그저께 왔다.’에서와 같이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첫눈이 그저께 왔다.’에 쓰인 ‘그저께’의 품사는 부사이고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에 쓰인 ‘세계적’의 품사는 관형사이고 문장 성분은 관형어이다. ⑤ ‘그는 세계적인 선수이다.’에서의 ‘세계적인’은 명사 ‘세계적’에 조사 ‘이-’와 어미 ‘-니’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에서의 ‘세계적으로’는 명사 ‘세계적’에 조사 ‘으로’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 36. 품사의 특성

**정답해설 :** ‘바퀴’는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모두 쓰이기 때문에 ㉠에 해당한다. ㉡의 ‘일곱 바퀴나’에서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는 의존 명사로 사용되었다. 참고로 ㉢의 ‘자전거 바퀴를’에 쓰인 ‘바퀴’는 자립 명사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마당’은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모두 쓰이기 때문에 ㉠에 해당한다. ㉡의 ‘급한 마당에’에서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는 의존 명사로 사용되었다. 참고로 ㉢의 ‘넓은 마당을’에 쓰인 ‘마당’은 자립 명사이다. ② ‘약간’은 ‘약간의 돈’처럼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약간 피곤했다’처럼 부사로 쓰이기도 한다.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품사 통용의 경우이기 때문에 ㉠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 ‘약간’은 명사로 쓰인 경우이며, ㉣의 ‘약간’은 부사로 쓰인 경우이다. ④ ‘가지다’는 본동사와 보조 동사로 모두 쓰이기 때문에 ㉡에 해당한다. ㉣의 ‘껴 가지고’에서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의 결과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또는 그럼으로써 뒷말의 행동이나 상태가 유발되거나 가능하게 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로 사용되었다. 참고로 ㉤의 ‘모임을 가지고’에 쓰인 ‘가지다’는 본동사이다. ⑤ ‘버

리다’는 본동사와 보조 동사로 모두 쓰이기 때문에 ㉠에 해당한다. ㉡의 ‘와 버렸다’에서는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로 사용되었다. 참고로 ㉢의 ‘휴지통에 버렸다’에 쓰인 ‘버리다’는 본동사이다.

### 37.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들녁을’의 ‘을’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들:려글]로 발음해야 한다. [들:려글]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인류가’는 유음화(㉡)를 적용하여 [일류가]로 발음해야 한다. [인류가]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ㄹ’의 비음화(㉡)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② ‘순환론’은 ‘ㄹ’의 비음화(㉡)를 적용하여 [순환론]으로 발음해야 한다. [순환론]으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유음화(㉡)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③ ‘코끝이’는 구개음화(㉡)를 적용하여 [코끄치]로 발음해야 한다. [코끄티]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구개음화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⑤ ‘봄여름’은 ㄴ 첨가(㉡)를 적용하여 [봄녀름]으로 발음해야 한다. [보며름]으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ㄴ 첨가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38.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妙光이 네 燈明을 돕스바 然燈入 스스이 도외시고[묘광이 옛적 등명을 도와 연등의 스승이 되시고]’에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妙光(묘광)’을 높이고 있다. ‘(妙光이) 이제 釋迦를 돕스바 燈明入 도를 니스시며[묘광이) 이제 석가를 도와 등명의 도를 이으시며]’에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妙光(묘광)’을 높이고 있다. ‘내 부터씩 말스물 흐스 보디(내가 부처께 말씀을 드리되)’에서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술-’을 통해 문장의 객체인 ‘부터(부처)’를 높이고 있다. 정답 ①

### 39. 문장의 짜임과 문법 요소

**정답해설 :** 관형사절 ‘그가 못 읽은’이 안긴절로 쓰였으며, 이 안긴절에는 짧은 부정 표현 ‘못’이 쓰였다. ‘읽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은문장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관형사절 ‘차갑지 않은’이 안긴절로 쓰였으며, 이 안긴절에는 긴 부정 표현 ‘-지 않다’가 쓰였다. ‘먹었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은문장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이다. ② 관형사절 ‘바쁜’과 인용절 ‘바쁜 업무들이 안 끝났다고’가 안긴절로 쓰였으며, 인용절에는 짧은 부정 표현 ‘안’이 쓰였다. ‘통보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은문장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이다. ③ 인용절 ‘결코 포기를 하지 않겠다고’가 안긴절로 쓰였으며, 이 안긴절에는 긴 부정 표현 ‘-지 않다’가 쓰였다. ‘결심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은문장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이다. ④ 관형사절 ‘그 버스가 제때 못 올’이 안긴절로 쓰였

으며, 이 안건절에는 짧은 부정 표현 ‘못’이 쓰였다. ‘예상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은문장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이다.

#### [40~45] 매체

#### 40. 사회적 상호 작용

**정답해설 :** ‘희경’은 ㉠에서 회의를 통해 ‘따끈따끈 소식’, ‘사람을 만나다’, ‘학생회 소식’의 순으로 기사 내용을 선정할 것임을 제시하여, 대화 참여자에게 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한빛’은 ㉠에서 ‘승민’이 제안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승민’의 발화 일부를 재진술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③ ‘민하’는 ‘재환’의 의견에 동의의 뜻을 드러내며 ㉡에서 영상 링크를 전송하고 있다. 따라서 ㉡의 영상 링크가 ‘재환’의 의견에 반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④ ‘희경’은 ㉢에서 물음표를 통해 추가로 논의할 사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빛’의 의견에 의문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⑤ ‘윤찬’은 ㉢에서 자신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1학기에 많이 빌린 책 목록’을 전송하고 있다. 하지만 ‘희경’이 이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 41. 뉴미디어의 특성

**정답해설 :** ‘전문 보기’는 이번 호에 제시된 기사의 전체 내용을 보는 기능이지 이전 호의 뉴스레터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의 제일 아랫부분에 제시된 ‘본 뉴스레터는 학생회 누리집에서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했기에 발송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뉴스레터가 학생회 누리집을 통해서 수신에 동의한 구독자에게만 발송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1. 따끈따끈 소식’ 위의 문장에 제시된 ‘매월 첫 번째 월요일마다 발송되는’이라는 내용을 통해 뉴스레터가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발송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만족도 조사 아래에 제시된 ‘‘제보하기’를 클릭해서 의견을 보내 주세요.’라는 내용을 통해 구독자가 ‘제보하기’를 통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3. 학생회 소식’ 아래의 ‘이번 호는 만족했어요.’, ‘이번 호는 불만족했어요.’를 통해 구독자가 뉴스레터에 대한 만족 여부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42. 정보 전달과 설득

**정답해설 :** (가)에서 ‘정희’와 ‘윤찬’은 학생들이 책을 고르는 데에 도움이 될 내용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대화 내용이 반영되어 (나)의 ‘1. 따끈따끈 소식’에는 ‘학

교 도서관 인기 도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 대화에서 '윤찬'이 도서 대출을 많이 한 학급 순위는 책을 고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나)에도 도서 대출을 많이 한 학급 순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승민'과 '한빛'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인 '운동장 야영'에 관해 다뤄 보자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대화 내용이 반영되어 (나)의 '1. 따끈따끈 소식'에 '운동장 야영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비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③ (가)에서 '재환'과 '민하'는 노래 대회에서 우승한 '유○○'의 화제성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대화 내용이 반영되어 (나)의 '2. 사람을 만나다'에 '유○○'의 노래 대회 참여 경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④ (가)에서 '범석'과 '수민'은 정년 퇴임으로 인해 9월부터는 학교에서 뵈 수 없는 '박□□ 선생님'이 '학교에 계실 때' 뵙고 얘기를 나누자며 면담 시기의 시의성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대화 내용이 반영되어 (나)의 '2. 사람을 만나다'에 '박□□ 선생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⑤ (가)에서 '혜정'과 '지호'는 학생회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대화 내용이 반영되어 (나)의 '3. 학생회 소식'에 '학생회 주관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 4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준호'의 글에서는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실천 방안' 세 가지를 가운데 정렬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다른 내용과 변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스마트폰 사용 시 시간대별 유의 사항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준호'의 글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현황 및 분석》,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라는 소제목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준호'의 글에서는 일주일간 스마트폰 사용량을 보여주는 그래프 자료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③ '준호'의 글에서는 지난주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표시하는 문구인 '3시간 정도'의 글자 크기와 굵기를 다른 글자들과 달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준호'의 글에서는 화살 모양의 표지를 사용하여 그래프 내용의 일부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하는 정보에 주목하도록 표시하고 있다.

#### 44.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정답해설 : '꿈자람'은 댓글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진로인 사진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취미인 전자책 읽기에도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꿈자람'이 진로를 고려해 스마트폰 사용 용도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④

---

[오답피하기] ① ‘친하리’는 댓글을 통해서 ‘주말엔 봉사 활동을 해서 스마트폰을 쓸 틈이 없었어요.’라며 평일보다 주말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적은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② ‘역사랑’은 댓글을 통해서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이제부터 역사에 대한 영상도 볼 거예요.’라며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상을 추가적으로 시청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역사랑’은 댓글을 통해서 ‘역사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정보를 공유해’ 보겠다며 누리 소통망으로 자신이 소통하고자 하는 대상과 화제를 드러내고 있다. ⑤ ‘꿈자람’은 댓글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일지를 작성하여 ‘상황에 따라 촬영 방법을 잘 선택하고 있는지 분석’하겠다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일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

#### 4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은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 가운데 영상 시청과 게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날이 토요일과 일요일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③ ㉢은 요리사로 진로를 정하고 영상을 보기 시작한 것이 근래의 일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④ ㉣은 앞서 주말에 영상 시청이 많은 이유에 대해 밝힌 것에 더해 주말에 게임 시간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것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⑤ ㉤은 자신이 전체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서 누리 소통망 사용 시간이 적은 부류에 속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누리 소통망을 주변 사람과만 사용해서 사용 시간이 적은 것이 당연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다.